

주요 내용

■ 기업의 효율적 대북 진출 전략과 고려 요인 ■

- 향후 경험은 정부·기업 등 양차원에서 진행될 것임
 - 정부 차원에서는 농업 및 각종 인프라 개발 지원 등, 기업 차원에서는 정부 협력 사업의 참여 및 공단 개발, 각종 산업 협력이 이루어질 것임
- 남북 경험 과정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될 수 있음
 - (진출 요인) 기업의 진출 요인으로는 남한내 산업구조 변화, 북한 지역의 경제적 장점, 과학기술의 발전, 북한의 경제사회적 필요 등을 들 수 있음
 - (1단계) 남한 성장 한계 산업의 북한 이전 및 인프라 개발 수요 등. 1단계에 서부터 경공업뿐만 아니라 중화학 공업 및 첨단 산업의 진출이 용이한 부문을 중심으로 진출
 - (2단계) 인프라 개발 수요 지속 및 북한 경제 회복에 따른 북한 내수용 중화학공업, 경공업 진출
 - (3단계) 남북한 보완적 산업구조의 확립 및 심화
- 기업은 향후 몇가지 요인을 고려한 진출 전략을 추구해야 함
 -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의 완화 정도, 북일 수교 시점 및 배상금 규모, 경험 법제도적 장치 실행 여부, 육상 수송로 개설 시기, 남한 기업 우대 조치의 실시 여부 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함

기업의 효율적 대북 진출 전략과 고려 요인

남북한 경제 협력 사업 기회

- (사업 기회) 정부 차원의 경제 협력과 민간 차원의 경제 협력으로 나누어지나 두 분야 모두 민간 기업의 참여가 가능함
- (정부 차원의 대북한 경제 협력) 농업 및 인프라 시설 지원이 될 것임
 - ① 농업 지원 : 식량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의 공동 모색
 - ② 인프라 지원 : 북한의 기초 산업 기반 확보를 위한 인프라 시설 지원
 - ▲ 남북 육로 연결 추진 등 교통 협력 : 철도의 경우 경의선 남북한 미연결 구간 복구 비용은 약 1,800억 원으로 예상되며, 도로의 경우 남북한 미연결구간인 판문점~개성 구간의 도로 시설 정비에 약 2,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
 - ▲ 전력 및 에너지 협력 : 북한 경제 회복의 최대 장애인 전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낙후된 발전 설비 및 송배전 설비 제공 가능
 - ▲ 항만 및 하역 시설 지원 : 남포항 등 남북 교류 거점을 중심으로 함
 - ▲ 통신 협력 : 각종 통신망의 정비 및 확충
- (민간 차원의 대북한 경제 협력) 민간 차원에서는 수익성 원칙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▲ 남북한의 장점을 취한 협력 ▲ 정부 차원의 협력시 동반 진출 및 이에 수반되는 각종 교역 등의 방향을 취해야 함

단계별 경험 전략

- 북한 진출 기업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크게 남한내 산업구조 변화, 북한 지역의 경제적 장점, 과학기술의 발전, 북한의 경제사회적 필요(요구) 등임
- (남한내 산업구조 변화) 지식기반경제,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성장 한계 산업의 대거 등장

- (북한 지역의 경제적 장점)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저임금 노동력 및 일정 수준의 과학 기술, 동북아 지역 중심의 지경학적 이점 등
 - (과학 기술의 발전) 세계적으로 정보통신 및 첨단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기존 개발 방식의 수정 및 도약형 방식의 중요성
 - (북한의 경제사회적 필요) 경제 재건에 필요한 수요 및 북한 주민의 필요 제품 증가. 북한 경제가 일정 정도 회복되면 필요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
- 향후 남북 경협 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진행될 것으로 보임
- (1단계) 남한내 성장 한계 산업을 북한으로 이전하는 한편,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첨단 산업 중 노동집약 분야의 대북 진출이 가능할 것임. 특히 경제 재건을 위한 인프라 수요가 커, 이 분야의 진출 비중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임

< 기업의 단계별 대북 진출 >

		1단계(1~5년)	2단계(5~10년)	3단계(10년 이후)
경제 협력		- 제한적 교류	- 개방적 교류	- 전면적 교류
협력 대상	인프라부문	- 농업 관련 인프라 - 남북한 육로 연계 - 전력, 항만 등 보수	- 도로, 전력, 항만 확충 - 통신 협력	- 동북아 시대에 대비한 교통망 정비 - 통신 협력 심화
	일반 산업	- 수출유망산업 - 노동집약적 산업 - 남한내 성장한계산업	- 수출 및 내수 산업 - 자본집약적 산업	- 수출 및 내수 산업 -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
협력 형태		- 필요 물품의 반출 및 임가공 - 합영, 합작 등 공동 운영	- 합영, 단독, 컨소시엄 등 형태 다양화	- 단독, 프로젝트 파이낸싱, 컨소시엄 등 형태 다양화
산업 입지		- 인프라 구축 지역 - 서해안공단 건설	- 인프라 구축 지역 - 서해안공단 활성화 - 동해안공단 건설	- 남북한의 전면적 입지 연계
투자 규모		- 대규모 인프라 - 소규모 투자 위주	- 대규모 인프라 - 중간 규모 투자 위주	- 대규모 인프라 - 대규모 투자 가능
기업 목표		- 위험최소화 - 정부차원 협력의 최대한 활용	- 장기적 전략에 입각한 기반 투자	- 성장성에 입각한 본격적 투자
목표 시장		- 해외 수출 시장 중심	- 해외 및 남한 시장 - 북한 내수 시장	- 북한 내수 시장 본격화 - 해외 및 남한 시장

- (2단계) 북한 경제 회복을 위한 인프라 수요가 지속되며, 북한 경제 회복에 따른 중화학 공업 진출 및 북한 주민 수요 증대에 따른 각종 경공업 진출 심화
 - (3단계) 모든 산업에서의 협력 심화에 따른 남북한 보완적 산업구조의 확립
- 단기적으로 경공업뿐만 아니라, 중화학공업, 첨단 산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진출할 수 있음
- 단기에 진출하기에는 경공업이 유리하지만, 유리한 부문을 중심으로 중화학공업, 첨단 산업도 초기부터 대북 진출이 이루어질 수 있음

< 업종별 단기 진출 방향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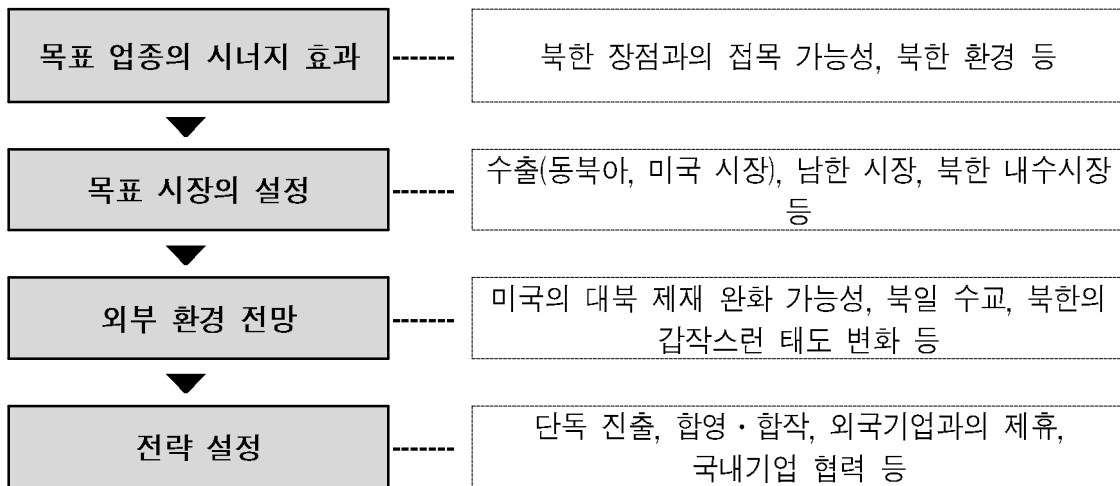
	기본 목표	주요 업종
경공업	- 수출 지향	- 봉제, 신발, 가죽 등의 분야 - 음식료업 -방직 및 직물
중화학공업	- 북한 경제 기반 정비에 필요한 기자재 반출	- 자동차 부품(타이어, 밧데리 등) -조선(수리 및 일부 조립) - 가전 및 전자 조립 -석유화학
첨단산업	- 경쟁력 있는 북한 과학 기술 분야의 제품 상용화 등	- 통신(유무선 통신 기기의 조립 등) - 컴퓨터 관련 하드웨어 조립 및 소프트웨어
각종 개발 사업	- 관광 및 자원 개발 - 정부 협력 사업의 참여	- 광업, 시멘트, 비철금속, 석재 등 건자재 개발 - 북한 관광지 연계 개발 -수출 공단 개발 - 전력, 도로, 철도, 항만 등 건설 -농업 관련 사업

기업의 진출 전략과 향후 고려 요인

- (기본 대응 전략) 남한 정부 - 남한 기업 - 북한 기업(정부)라는 구도 하에서 기본 전략 구축
 - (남한 기업 - 남한 정부) 정부-기업의 경협 사업 연계, 경협 사업 지원 유도
 - (남한 기업 - 북한 기업) 경협이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윈윈 전략(win-win strategy)의 확립
 - (남한 기업 - 북한 정부) 남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

- (남한 기업) 대북 진출 기본 계획의 철저한 입안 및 내실있는 전략적 진출
- (남한 기업 간) 기업간 과당 경쟁의 방지 및 협력 강화
- (진출 방안 구축) 목표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고 진출 전략을 구축해야 함

< 기업의 대북 진출 방안 >



- 북한 진출 기업의 경우 향후 고려 요인으로 몇가지를 들 수 있음
 - (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조치) 해외 수출(특히 미국시장)을 목표로 하는 경우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완화는 커다란 관건임
 - (북일 수교 시점) 북일 수교 및 이에 따른 대북 배상금 규모는 향후 북한 인프라 투자 및 산업 회복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임
 - (경협 법제도적 장치 마련) 투자보장협정,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의 체결 및 실행
 - (육상 수송로 개설) 육상 수송로 개설에 따른 물류비 절감은 교류 활성화에 커다란 역할 담당
 - (남한기업 우대 조치) 중국의 대만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가 양안 교류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처럼, 남한기업 우대 조치의 여부는 남북 경협에 큰 영향을 미침

(황동언 연구위원 hde@hri.co.kr ☎ 3669-4085)